

오타루 운하를 따라 있는 창고군

오타루 운하를 따라 늘어선 창고군은 오타루의 경관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이 되었습니다. 이 창고군은 1923년에 오타루 운하가 완공된 후 매립지에 지어진 것입니다. 당시, 이 창고군은 오타루 운하 쪽에 개구부가 있어 짐을 싣고 내리기에 편리했습니다.

제 1 차 세계대전(1914년~1918년) 중에 오타루 항구는 홋카이도에서 유럽으로 곡물을 수출하는 데 사용되어 오타루의 창고업은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오타루 운하 남쪽 끝에 있던 구 나니와 창고는 현존하는 오타루 창고군 최대 규모의 창고 중 하나입니다. 이 목골석조 창고는 1925년에 지어졌습니다. 2022년, 이 건물은 오타루 예술촌의 일부인 서양미술관으로 재이용되게 되었습니다. 오타루 예술촌에서는 여러 역사적 건축물이 박물관과 소규모 미술관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구 시노다 창고(현재는 레스토랑)는 오타루 운하를 따라 지어진 몇 안 되는 벽돌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이 창고는 1925년에 완공되어 곡물과 수입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시부사와 창고도 같은 해에 지어졌습니다. 시부사와 창고부(훗날 시부사와 창고 주식회사로 명명)는 이때 이미 도쿄에 몇 채의 창고를 가지고 있었으며, 1915년에 오타루에 진출했습니다. 운하를 따라 여러 채 있는 이 회사의 창고 벽에는 '류고(立鼓)', 즉 북을 세로로 한 형태를 모티브로 한 회사 로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타루의 경제적 쇠퇴가 보였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많은 창고가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타루 운하를 지키는 모임의 노력으로 오타루 운하와 주변의 역사적 지역은 1980년대 인기 관광지로 부활했습니다. 창고군의 대부분은 보수되어 레스토랑, 상점, 미술관으로 재이용되고 있습니다.